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는 임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므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피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중요군수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조국통일, 조국사수를 위한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완성을 무장장비생산으로 억척같이 담보해야 할 무거운 사명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수단들의 무수한 증산성과로 당의 위업에 절대충성할 불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의 태풍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태풍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일대를 돌아보시며 피해복구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태풍피해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최근 태풍6호에 의한 폭우와 해일의 영향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천제방이 터지고 200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태풍피해인 비군사적임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고, 그 어떤 위기속에서도 인민의 생명 안전을 목숨으로 지키는것은 우리 군대의 본분이고 절대사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침수된 농경지를 빠른 시간내에 복구하였으므로 얼마든지 피해후과를 막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최대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알곡수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급히 영양관리대책을 따르세우는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농업기술적대책들을 세우는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안변군 오계리에서 200여정보에 달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된것은 전적으로 이 지역 농업지도기관들과 당조직들의 심히 만성화되고 무책임한 사업태도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해마다 자연재해가 들이닥치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피해방지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전당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해당 지시들을 포치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지만 이곳 일군들은 국가적조치에 둔감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결과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 후과를 초래하였다고, 이번 계기에 다시한번 자연재해방지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체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위험개소들을 빨리 찾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